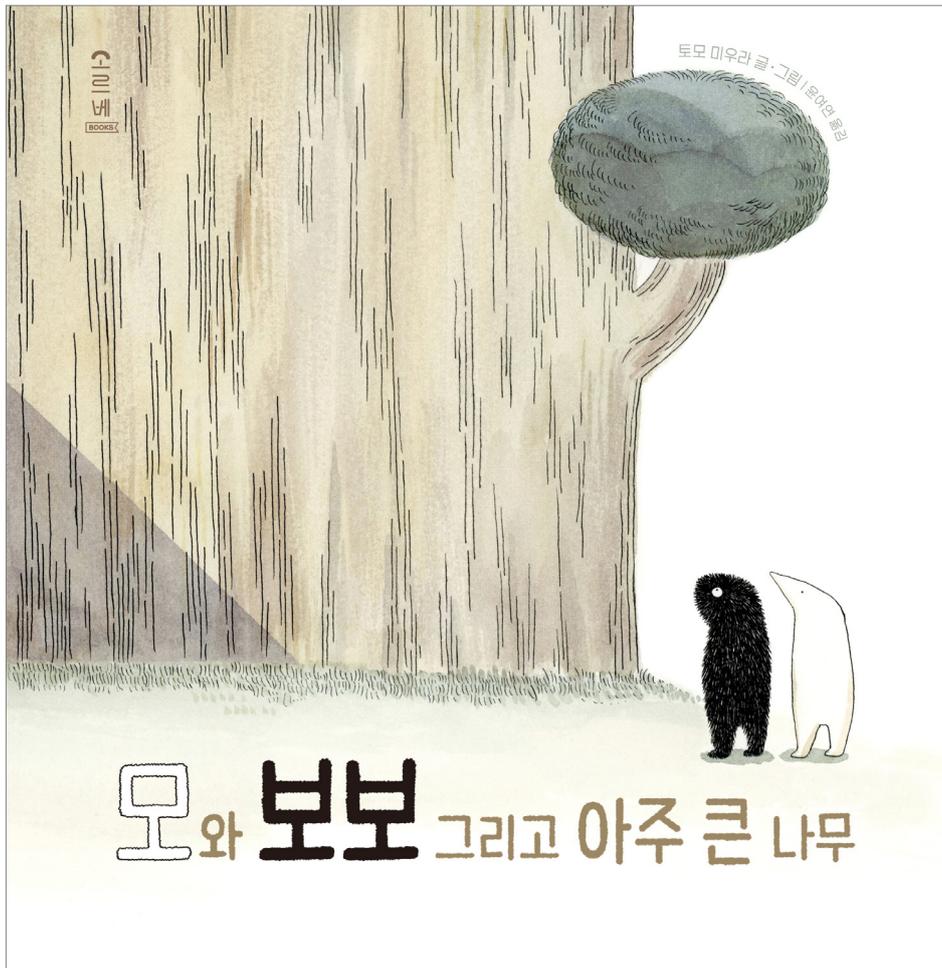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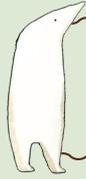


〈모와 보보 그리고 아주 큰 나무〉
그림책 활동지



‘혼자’에서 ‘함께’로 나아가는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나를 잘 알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답게 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아래 문장을 읽고, 나와 어울리는 쪽에 ○표 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아요.

- 나는 (조용한 / 신나는) 공간을 좋아해요.
- 나는 (혼자 있을 때 / 여럿이 어울릴 때) 편안해요.
- 나는 친구 (한두 명과 / 여러 명과) 함께 노는 게 좋아요.
-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 재미있어요).
- 나는 처음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는 / 일단 지켜보는) 편이에요.
- 나는 친구랑 실컷 놀고 나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 /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하고 외로운 /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들뜬) 기분이 들어요.



나는 자라고 있어요.



혼자라서, 함께라서 좋은 날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모두 필요해요.

아래에 나온 일상을 보고 그때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라서 좋았다면 **노란색**, 함께라서 좋았다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해 보세요.

노래 들을 때

책 읽을 때

색종이 접을 때

놀이터에서 놀 때

놀이기구 탈 때

산에 올라갈 때

산책할 때

요리할 때

영화 볼 때

장난감 가지고 놀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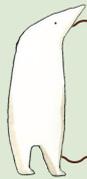
간식 먹을 때

퍼즐 맞추기 할 때

만들기 할 때



혼자가 좋은 날도, 함께라서 좋은 날도, 모두 다 나예요.



마음의 모양을 찾아라!

‘나’라는 사람을 말랑말랑한 동그라미라고 상상해 보아요.

이 동그라미는 기분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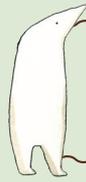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양일까요? 친구들과 함께할 때는 또 어떤 모양일까요?



TIP 졸릴 때, 화날 때, 심심할 때, 배고플 때
내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변신쟁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어떤 건 조금 어려울까요?

나에 대해 잘 알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나’ 안내문을 완성해 보세요.

‘나’ 안내문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입니다.

나이는 () 살이에요.

나는 (혼자 / 단둘이 / 여럿이) 노는 걸 좋아해요.

나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걸 / 누군가 나에게 인사해 주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하는 걸 / 듣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내가 말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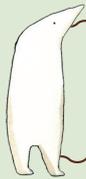
(휴식이 필요하다는 / 졸리다는 /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잠시 기다려 주세요 / 괜찮은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나는 좀 더 편해져요.



나는 이런 친구가 좋아요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놀면 마음이 편하고,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지요.
나는 어떤 친구와 함께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모두 골라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아는 친구

힘이 센 친구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

목소리가 큰 친구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색종이 접기를 잘하는 친구

인사를 잘 해 주는 친구

잘 웃어 주는 친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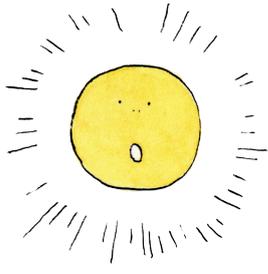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먼저 다가와 주는 친구

책을 좋아하는 친구



친구는 많고 적음보다 함께할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나'의 세상을 즐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되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질 때,
비로소 '너'라는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와 '너'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친절, 배려, 기다림이라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고
조금씩 '함께' 하는 법을 배워 가지요.

'혼자'에서 '함께'로 넘어가는 시기,
아이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속도에 따라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르베북스는 입가심처럼 일상의 환기가 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일상의 환기가 건강한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 소르베니우스(Sorbenius)

별명 Mr. 소르베(Mr. Sorbet)

특징

- 상냥하고 유쾌하다.
- 기분에 따라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다.
-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고 공감한다.
- 원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맛과 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 언제든지 녹을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



소르베북스

〈모와 보보 그리고 아주 큰 나무〉 그림책 활동지는
소르베북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orbetbooks.com

전자우편 sorbetbooks@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rbetbooks>

인스타그램 @sorbet_books

©Sorbet Books X Éditions La Joie de lire S.A.